

"원도심 살릴 열쇠는 관덕정 광장 기능 회복"

[1 관덕정-김동전 교수 인터뷰] 중앙~서문로터리 도로 없애 광장으로 조성해야

데스크승인 2014.01.02 김현중 기자 | tazan@jejunews.com



"관덕정은 유적의 의미를 넘어 제주의 영원한 구심체란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김동전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제주대박물관장)는 조선시대 병사 훈련장과 과거 시험장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의 장터, 이후 탐라국입춘굿 집전장 등으로 이어져온 관덕정의 역할을 언급한 후 "관덕정은 제주사회의 정치·사회·문화적 거점장소"라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제주 정체성을 되살리는 원도심 복원의 핵심이 관덕정의 광장기능 회복"이라며 "도민이 모여 소통하고 역량을 결집하던 공간을 현대에 맞춰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중앙로터리~서문로터리 구간 도로를 없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제주성·목관아와 연계해 관덕정의 광장기능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관덕정의 외형과 대해 “검증의 한계와 기술적 제약으로 미흡한 부분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 ‘호남제일정’의 원형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